코스피 ↓ -4.75 (2610.85) | 코스닥 ↓ -4.59 (876.13) | 원·달러 환율 ↓ -0.10 (1303.70) | 금리(국고채 3년) ↑ +0.079 (3.550)

여행수요 급증하는데… 지역 여행사 인력난 '한숨'

국제선 이용객 1년새 6.5배↑
대규모 여행사들 공채 줄이어
소규모 여행사는 충원 골머리
고물가로 마진율 낮아 이중고

"코로나 때 떠나버린 인력풀이 회복되지 않아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여행사들은 예전에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엔데믹을 맞아 급증하는 여행 수요와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선 가운데 지역 소규모 여행사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심해진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항공사를 이용한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932만9254명으로 지난해 5월(753만8000명)보다 23.8% 증가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5월 55만60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360만1000명으로 6.5배 폭증했다.

이처럼 코로나 종식과 극성수기를 피해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로 물밀듯 밀려드는 여행 수요에 국내 대형 여행사들은 수년 만에 공개채용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인원을 대폭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수시로 채용했지만, 여행업이 회복 수순을 밟으며 대규모의 신입사원 선발이 물꼬를 튼 것이다.

하나투어의 경우 이달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100여명대로 창사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모두투어의 경우 최근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통해 20여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 채용형 인턴십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고 교원투어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상반기 신입·경력 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해 지난달 말 기준 인력 규모를 270명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지역 소규모 여행사들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각국의 시차 문제 등에 따른 열악한 업무 특성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여행업계를 떠나버린 인력풀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박모(58)씨는 "최근 여행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 문제는 일은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전에만 해도 5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의 직원과 모든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출장 갈 직원이 없어 일을 받아오고 싶어도 욕심껏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 노선은 전문 인솔자라고 패키지사에서 다니는 인솔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항공료와 식비, 부대비용 등의 물가 상승으로 패키지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 확연히 오른 것도 소규모 여행사에게는 부담이다.

박씨는 "예전에는 500만원이면 미국행 티켓도 구했는데 이제는 700만원 이상이다. 항공료며 물가며 모든게 올라 패키지 가격이 높아진다"며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전보다 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해서 판매를 하는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나도 마진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또 다른 대표는 "옛날에는 수수료가 12% 정도 됐다면, 지금은 많아봤자 7%이고 대부분 5%를 넘지 않는다. 만약 1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에게 남는 금액은 5만원인 셈이고 그 상품 100개를 판매해야 500만원인데 여기서 임대료에 공과금에 직원들 임금까지 충당하려니 임금 체계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고생하며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함께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신세계, 환경의날 기념 '그린 바캉스 페어' 광주신세계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Better Choic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그린 바캉스 페어'와 환경의 날 기념전 '떠나보낸, 함께 살아가야 할' 작품 전시를 열고 있다. 또 '그린 바캉스 페어' 행사 중 하나로 친환경 브랜드 숲소리와 무아무아의 팝업스토어를 오는 14일까지 연다. 광주신세계 제공

연구개발특구재단, AI 신기술 실증구역 조성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조성
규제 없이 신제품 개발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차세대 미래 산업인 AI기반의 에어가전과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광주이노비즈센터에 실증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7일 개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설치한 실증장치는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탄소저감효과와 공기 정화기능을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 기반의 실외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에스아이솔루션에서 공동 연구개발 중에 있다.

해당 실증제품은 국내 4계절 환경에 최적화된 담수용 미세조류의 광(光)생물반응기술과 미세조류 생장을 위한 마이크로 방오필름 등의 신기술들이 적용된 실외 전용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환경이나 공중 밀집도가 높은 실외 공중시설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그간 해당 제품의 실제 환경(도로변)에서 직접 가동을 통해 장치 안전성 검증과 운영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드 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법령·지침 등의 규제 충돌 이슈로 실증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당 장치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저촉 없이 자유롭게 실증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지정을 지원했다.

실증특례 지정기관이 기존 법령·지침 등의 규제 이외에도 행정 실무선에 나타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실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특구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우선, 광주시와 북구청은 관할 행정구역 내 실증 장치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추가 발생하는 행정절차 사항들도 간소화 지원을 확약했다.

특구재단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증장소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관리·운영중에 있는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무상 제공했다.

최권범 기자

도도인터내셔널 '셀이야 퍼펙트 올인원 앰플' 출시

㈜도도인터내셔널은 신제품 '셀이야 퍼펙트 올인원 앰플'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셀이야 퍼펙트 올인원 앰플'은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10㎖용량의 병 5개로 구성돼 있다.

제품 주요 성분인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한다. 또한 항산화능력은 비타민C의 6000배, 비타민E의 550배, 코엔자임의 800배, 베타카로틴의 40배 가량 발휘하며, 독성이 강한 '일중항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새로운 미백 기능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트라넥사믹애씨드 성분이 멜라닌세포의 자극을 억제해 기미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도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 5월 '셀이야 인피니티 오션글로우 쿠션'을 출시한 바 있다.

한편 도도인터내셔널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몸과 피부에 이로운 제품을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이념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대금 급감

전체 시가총액은 증가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매수거래대금은 3조2048억원으로 전월대비 40.53%(2조1841억원) 감소했다. 매도거래대금은 3조3018억원으로 전월대비 18.72%(2조858억원) 줄었다.

코스피에서는 매수거래대금이 전월대비 37.67%(9562억원), 매도거래대금이 34.63%(8929억원) 각각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거래대금 43.08%(1조2278억원), 매도거래대금 42.47%(1조1929억원)이 각각 줄었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78%로 전월보다 0.13%p 감소했다. 매도거래대금 비중은 0.8%로 전월대비 0.11%p 감소했다.

코스피 주요 거래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을 매수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등을 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을 매수 및 매도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시가총액은 19조7513억원으로 전월대비 1.3%(2584억원) 증가했다. 코스피는 1.06%(1840억원), 코스닥은 3.41%(744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2567억원, 2.14%), 금호타이어(588억원, 4.56%) 등이 증가했고 한전KPS(-765억원, -4.76%) 등이 감소했다.

코스닥은 남화토건(180억원, 17.62%), 위니아(87억원, 12.67%) 등이 증가했고 위니아에이드(-60억원, -6.55%), 박셀바이오(-53억원, -0.88%) 등이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성급한 부동산 정책, 지금은 조심해야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최근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의해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다. 30대를 위주로 정년층이 장년층 보다 더 많이 아파트 매수세에 뛰어 든다고 한다. 현 정부는 15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생산·소비위축의 저성장 기조를 부동산 부양책으로 메우려 하는 것 같다. 주택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 여기에 일부 언론이 가세해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을 왜곡된 시장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몇 년전 부동산 폭등은 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양적완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기현상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때맞춰 인플레이션에 의한 글로벌 양적축소가 진행됐다. 그리고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상화 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2~3배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평균 10~20% 정도 하락했을 뿐인데 성급하게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에서 직접 짓는 것 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는 셈이다. 근원적인 구조조정 없이 얄팍한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를 파탄시킨다. 건설회사든 건설자본가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시장경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이상 털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부실을 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건설자본가들과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누릴 때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들이 했던 일은 분양가를 계속 높였던 것 말고는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GDP(국민총생산)를 넘어서는(102%) 유일한 국가(주요 34개국 중)가 됐다. IMF는 가계부채가 GDP의 80%가 넘어가면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이 주택 연계 대출(67%·한국은행)다. 그런데 1분기에 잠깐 줄었던 가계부채(3.3%하락)가 최근 다시늘고 있다. 성급한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0.4% 로 급등 했고,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5.1%(저축은행중앙회)를 넘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난이 시작단계고 여기에 부동산 관련 대출까지 부실화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